국보 '산청 범학리 석탑' 77년만에 제자리

국립진주박물관, 11월 30일 환수 기념 전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보 제105호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이 고향을 떠난지 77년 만에 돌아온다.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최영창)은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박물관에서도 전시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인 9세기 무렵에 조성된 후 조선 시대까지 사찰과 함께 경호강이 바라보이는 둔철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사찰이 없어지고, 석탑은 허물어져 있던 것을 1941년 일본인 골동품상이 매수해 산청을 떠나게 되었다.

석탑은 대구에 있던 공장 공터에 해체·보관돼 있었는데,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1942년 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이후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은 1946년 5월 27일 미군 공병대의 도움을 받아 경복궁 안에 세워졌으나, 1994년 경복궁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해체됐다. 그리고 23년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왔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석조문화재가 수장고 안에 보관된 것에 진주 이관을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요청했고, 지난해 2월 이전·전시를 결정했다.

석탑 이관·전시에 앞서 국립진주박물관은 석탑의 역사와 미술사 등 다각적 종합 연구를 실시했다.

전형적인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은 경남지역 석탑으로는 유일하게 탑 외면에 부조상이 새겨져 있다. 석탑 상층 기단에는 8구의 신장상, 1층 탑신에는 4구의 보살상이 정교한 수법으로 새겨져 있어, 당시 매우 정성들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장상과 보살상의 조합은 독특한 사례로 통일신라 후기 석탑 양식 연구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며, 당시 뛰어난 조각기술과 경남지역 불교미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석탑의 암질에 대한 분석도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 '섬장암'으로 밝혀졌다. 섬장암은 국내에 지질 분포가 적어 석탑 부재로서의 사용은 희귀하다. 그러나 산청군 범학리 일대 지질과 산지 조사에서 섬장암이 넓게 분포 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석탑 부재와의 동질성 분석에서도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일본인 골동품상에 의해 매수돼 1914년 고향을 떠났다가 77년만에 제자리를 찾게 되는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

1914년 日골동품상 매수해
조선총독부 박물관 옮겨져
현재까지 國博 수장고 보관

진주博 제기 이관 요청 수용
현재 상설전시관 공사 진행
암질 연구 통해 섬장암 확인
하대석 복원 같은 암석 사용

이런 연구는 석탑 복원에 활용됐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석탑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석탑 부재중 하대석 이하 일부분이 결실됐고, 동일 암석을 부재로 사용해 복원을 완료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산청군 정곡리에 폐 채석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석한 결과 석탑 부재와 동일한 섬장암 광산임이 밝혀졌다. 산청군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복원 부재를 입수했다"면서 "복원 재료를 원 석탑 부재와 동일한 산지의 돌로 복원한 사례는 국내에서 극히 드물다. 기존의 석탑 복원사업보다 진일보한 복원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은 11월 5일부터 석탑 재건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시작했으며, 상설전시실 개편 공사가 완료되는 11월 30일부터 복원된 석탑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박물관은 석탑 환수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며, 내년에는 석탑 연구 결과를 종합한 학술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고려 천수관음보살도 보물 된다

문화재청 22일 지정예고… 조선 목판·경전도

"화려·섬세한 기법" 평가
조선 기사계첩 국보 승격



고려 시대 조성된 불화인 '고려 천수관음보살도'〈사진〉가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 천수관음보살도'를 포함한 고려 시대 불화, 조선 시대 목판과 경전 등 3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또한, 18세기 초 대표적 궁중회화로 꼽혀 온 보물 제929호 '기사계첩'은 국보로 승격 예고했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고려 천수관음보살도(高麗 千手觀音菩薩圖)'는 14세기경에 제작된 고려 시대 작품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의 자비력을 극대화한 불화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변색되었으나, 11면의 얼굴과 44개의 손을 지닌 관음보살과 화면 위를 가득 채운 원형 광배, 아래쪽에 관음보살을 바라보며 합장한 선재동자, 금강산에서 중생이 떨어지는 재난을 묘사한 타락난(墮落難) 등 관음신앙과 관련된 경전 속 도상을 충실하게 구현했다. 화면 요소마다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필력으로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해 매우 우수한 조형감각을 보여준다.

문화재청 "고려불화 중 현존 유일하게 알려진 천수관음보살도"라며 "다채로운 채색과 금니(金泥)의 조화, 격조 있고 세련된 표현 양식 등 고려불화의 전형적인 특징이 반영된 작품으로, 종교성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함께 지정예고된 '제진언집 목판(諸眞言集 木板)'은 1658년(효종 9년) 강원도 속초 신흥사에서 다시 새긴 '중간(重刊) 목판'으로, 〈불정심다라니경〉·〈제진언집목록〉·〈진언집〉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이 목판은 1569년(선조 2년)에 안심사에서 처음 판각됐으나, 안심사본 목판은 현재 전하고 있지 않아 신흥사 소장 목판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에 해당한다.

한글, 한자, 범어(梵語)가 함께 기록된 희귀한 사례에 속하며 16~17세기 언어학과 불교의례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조선 초기 명필가 성달생(成達生)과 성개(成槪) 형제가 부모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법화경(法華經)〉을 정서(精書)한 판본(板本)을 바탕으로 1405년(태종 5년) 전북 완주군 안심사에서 승려 신문(信文)이 주관해 간행한 불경이다.

구결(口訣)이 전반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한글로 토(吐)가 달려 있어 조선 초기 국어사 연구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 간행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발문을 통해 조선 초기 불경의 간행 방식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서지학과 불교사 연구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높다.

한편, 문화재청은 '고려 천수관음보살도'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흥천사 관음삼존, 조선 후기 대표작"

문명대 교수, 11월 17일 한국미술사硏 학술대회서



서울 흥천사에 봉안된 수월관음상. 1701년 법잠 스님이 조성했다.

서울 흥천사에 봉안된 수월관음보살 삼존상이 조선 후기 조각사를 대표할 만한 중요한 문화재임이 확인됐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11월 17일 (사)한국미술사연구소와 한국불교미술사학회가 개최한 '600년 왕실 원찰 서울 흥천사 불상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문명대 교수는 '흥천사 불상의 성격과 1701년 법잠(法岑) 작 목조(木造) 수월관음보살 삼존상 및 복장품 연구' 기조강연에서 흥천사 수월관음삼존상의 도상 특징에 주목했다.

흥천사 수월관음삼존상은 주존인 수월관음상과 함께 좌우로 선재동자와 용왕이 협시돼 있다. 이 같은 도상은 서울 흥천사 이외에 보은 법주사, 남해 보리암 등 3곳에만 존재한다.

문명대 교수는 "흥천사 관음보살 삼존상은 선재동자와 용왕 또는 청조와 정병의 도상으로 이런 사례는 두 곳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법주사는 협시가 너무 작고, 보리암은 연대가 없는 작은 불감이어서 흥천사 삼존상이 유일한 예배상이기 때문에 크게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월관음에 선재·용왕 협시
흥천사 外 2곳만 희귀 사례
"18세기 양식 대표 기준작"

흥천사 수월관음삼존상은 조성기로 통해 1701년 법잠 스님이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래 전북 임실 신흥사 적조암에 봉안돼 있었지만, 언제 현재의 흥천사로 이안됐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에 문명대 교수는 "성북구 시기 흥천사의 신앙적 성격이 석가불에서 아미타불로 변했기 때문에 협시인 관음보살상이 크게 중요시 됐을 것"이라며 "법잠의 수월관음삼존상의 이안 시기는 19세기 중엽 전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명대 교수는 흥천사 수월관음삼존상이 18세기 초기 대표작임을 거듭 강조했다. "사각형의 친근하고 원만한 얼굴, 벌어진 상체 등과 함께 화려한 보관은 색난계 목조보살상에서 주로 표현되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문명대 교수는 "1701년 법잠 스님이 조성한 흥천사 수월관음삼존상은 18세기 보살상 양식을 대표하는 기준작"이라면서 "조선 후반기 조각사에서 귀중한 의의를 가진 대표작 중 하나로 높이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흥천사 목조 아미타불상과 대세지보살상 연구(심주완 조계종 호계원 팀장) △흥천사 노전 약사(1829)·아미타·지장보살상 연구(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 △흥천사의 불교사상(문무왕 동명대 연구교수) △흥천사 창건기의 문화재, 흥천사 동종 조사의 감동(최응천 동국대 교수가) 등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불교음악 정체성은 무엇인가

조계종 불교음악원 12월 7일 제1회 학술세미나

한국불교 음악의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12월 7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음악 정체성 탐구'를 주제로 제1회 불교음악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경전 상의 불교음악과 동아시아 불교음악의 미학적 의미를 확인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윤소희 위덕대 학술연구교수, 손인애 조계종 포교원 의례실무위원,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위원 원명 스님이 발제자로 나서며, 논평에는 안승철 중앙대 국악대학 한국음악과 강사, 서정매 부산대 대학원 한국음악학 박사, 차형석 한양대 대학원 음악학 박사, 불교문예연구소 선임연구원 해사 스님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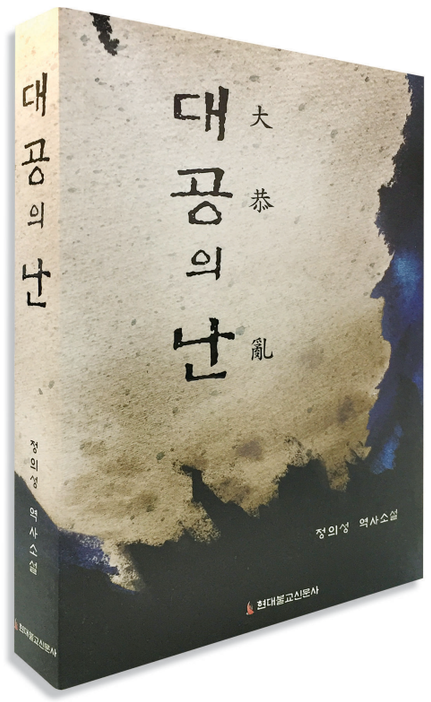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